

No.2 - 긴푸센지 절(엠피)

긴푸센지 절은 슈겐도라는 종교의 시조인 엔노 교자(634~701)에 의해 7 세기에 창건 되었다고 하며, 요시노야마 산 능선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슈겐도는 고대 일본의 자연 숭배 사상에 불교와 도교 등이 융합된 종교로, 수행을 쌓는 산악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긴푸센지 절은 이러한 슈겐도의 근본도장(가장 중요한 수행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겐도의 수도자들은 지금도 산조가타케 산으로 향하는 험난하고 고된 수행길의 출발 지점으로서 이 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오도는 나라 도다이지 절(東大寺)의 다이부쓰덴(大佛殿)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되고 큰 목조 건축물로, 그 안에는 3구의 자오곤겐(슈겐도의 본존)상 등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오곤겐상은 평소에는 볼 수 없지만, 종종 일반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요시노야마 산은 헤이안 시대(794~1185)부터 벚꽃 명소로 유명한 곳으로, 특히 봄은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꼽힙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5월이 되면 슈겐도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9월까지 긴푸센지 절에는 소라고등으로 만든 법라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전통 의상을 입은 슈겐도의 수도자들은 산조가타케 산까지 험난한 길을 걷는 고된 수행에 몰두합니다.

긴푸센지 절은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의 구성자산입니다.